

한경훈 / 2월+4월 / 도약GS / 5회									응시인원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509117	24	15	22	13	74	1	4.55%	7	22
513791	21	12	14	14	61	2	9.09%	5	
514122	20	12	17	11	60	3	13.64%	5	
509387	21	10	16	11	58	4	18.18%	5	
508482	23	12	11	8	54	5	22.73%	6	
513476	20	8	14	10	52	6	27.27%	5	
513808	18	12	12	9	51	7	31.82%	5	
519749	19	10	13	9	51	7	31.82%	5	
509127	21	12	17	0	50	9	40.91%	5	
514007	18	12	13	7	50	9	40.91%	4	
513617	19	11	10	8	48	11	50.00%	5	
513448	21	8	10	8	47	12	54.55%	4	
513770	17	9	12	8	46	13	59.09%	4	
508885	22	11	12	0	45	14	63.64%	5	
513947	16	9	8	12	45	14	63.64%	6	
513438	15	12	7	8	42	16	72.73%	5	
513719	14	12	9	7	42	16	72.73%	4	
513677	20	12	9	0	41	18	81.82%	5	
508888	14	10	8	6	38	19	86.36%	5	
514023	15	8	6	9	38	19	86.36%	5	
509377	14	11	12	0	37	21	95.45%	4	
514087	16	11	0	5	32	22	100.00%	3	

한경훈/2월/도약GS/5회/1번	채점자
	김시연
<p>1. 전반적인 총평</p> <p>진한커피 사례와 관련된 통배점 문제였습니다. 이 사안의 특징은 '진한커피'라는 제명에 대하여 상표법이 적용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만의 특징인 제명의 상표적 사용 인정에 대하여 꼭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22점이라는 비교적 큰 통배점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분량은 최소 3페이지~4페이지를 채워주셔야 합니다.</p> <p>또한, 이렇게 배점이 큰 문제의 경우 여러 가지 논점에 점수가 할당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문제만 하더라도, (1) 제명의 상표적 사용 여부, (2) 선사용권 인정 여부, (3) 효력 제한 여부, (4) 권리 남용 여부까지 총 4가지의 세부 논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다 찾아서 기재해 주신 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으셨고, 이 중 한 가지의 논점이라도 놓치시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p> <p>논점을 다 캐치하셨다고 하더라도, 진한커피 사안의 특성 상 '제명, 제호가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외 판례'를 기재해주지 않으시고,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접근하신 경우에는 점수를 드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사안의 경우, 수험생이 해당 판례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시험장에서 판례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더라도, 특수한 논점이 있었던 사안이라면 해당 판례를 꼭 적어주세요.</p> <p>소송의 결과 예상이므로, '00판결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결론에서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p>	

(2) 설문 2

무효 사유는 34조 1항 9호, 12호 후단, 13호, 20호로 총 4가지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또한, 무효 심판을 기재해 주시고 기타 다른 조치들을 비슷한 분량으로 적어주신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비슷한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상표권에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심판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주세요.

3. 소결

통배점 문제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분량을 다 채우지 못하셨습니다. 혹은 설문 1에서는 완벽하게 작성하시고 시간이 부족하셨는지, 설문 2를 다 쓰지 못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시간관리 및 분량조절은 필수적으로 항상 연습해 주세요.

한경훈/2월/도약GS/5회/2번	채점자
	김시연
<p>1. 전반적인 총평</p> <p>출원 후 등록 전 취할 수 있는 조치 및 간접침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해당 문제에는 명시적으로 '2024년 7월 이전'까지의 을의 사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잘 써주셨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성급하게 읽다보면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일 때의 조치라는 점을 간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을의 사용 상표 Y가 을의 '상호'와 동일하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놓치셨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손실보상금 청구권에 대하여 적절한 분량으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p> <p>또한, 고의성이 추정되는 규정이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① 출원 공고 후라면 서면 경고를 ② 출원 공고 전이라면 출원서 사본과 함께 서면 경고를 해야 하는 점을 구분하여 적어주시면 좋습니다.</p> <p>(2) 설문 2</p> <p>제1사용태양의 경우 유사범위에서의 직접침해이며, 제2사용태양의 경우 간접침해입니다. 이를 구분하여 목차를 구성해주시는 것이 가독성 면에서 좋습니다.</p> <p>또한, 많은 분들이 99조 1항의 선사용권은 잘 캐치해 주셨는데, 99조2항의 선사용권에 관하여는 놓치셨습니다. 사안에서 을의 상표가 자신의 상호와 동일함을 꼭 놓치지 말고 확인해 주세요. 특히 시험장에서 이런 작은 세부 논점을 놓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 읽으실 때, 꼭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상호'와 같은 특수한 단어가 나오면 꼭 표시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p> <p>3. 소결</p> <p>전반적으로 분량면에서 다 채우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GS 후반부에 접어들다 보니 다들 지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 2월이니, 지치시거나 힘드시면 잠깐씩 리프레시 하시고 재정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p>	

한경훈/2월/도약GS/5회/3번	채점자
	강경민
<p>1. 문제 3</p> <p>(1) 설문 1</p> <p>제33조 1항 3호는 상표의 ‘구성태양’ 만으로 식별력을 판단하나, 제90조 1항 2호는 실제 ‘사용태양’ 도 고려하여 식별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키워드를 살려 서술해주신 경우 점수를 모두 드렸습니다.</p> <p>(2) 설문 2</p> <p>침해요건 판단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청구의 결론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상표 유사 여부, 상표적 사용 여부, 효력 제한 여부에 대해서 골고루 서술해주신 답안이 많지 않았습니다. 배점이 큰 문제인 만큼 강약조절해서 골고루 답안 작성하는 것 연습해주시기 바랍니다.</p> <p>또한 설문 1에서 제33조 1항 3호와 제90조 1항 2호의 차이를 물었기에 이와 관련하여, 사용태양을 중심으로 효력제한여부 판단해주신 분들에게 좋은 점수를 드렸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p> <p>(3) 설문 3</p> <p>마찬가지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인 침해, 고의 과실, 손해에 대해 골고루 서술해주신 답안이 많지 않았습니다. 설문 2에 비해 배점은 적은 편이나, 아주 소 배점 문제가 아닌 이상 문제되는 모든 요건에 대해 짧게라도 서술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p> <p>또한 기각판결을 기각심결로 잘못 쓴 답안이 종종 보였습니다. 이런 사소한 실수로 답안 인상이 나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p>	

한경훈/2월/도약GS/5회/4번	채점자
	강경민
<p>2. 문제 4</p> <p>(1) 설문 1</p> <p>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재심사 청구 및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의의, 취지, 요건, 절차, 효과 및 가부에 관해 풍부하게 답안을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점수를 부여했습니다.</p> <p>(2) 설문 2</p> <p>논점을 제대로 캐치한 분들이 많지 않았던 답안이었습니다. 또한 논점을 파악하셨더라도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 취급’ 판례에 대해 정확하게 서술해주신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허와 공통되는 판례인 만큼 꼭 숙지해주시고 그에 대한 선결 문제로서 의견제출기회(제123조가 제55조 준용) 및 강행규정임 판례까지 한 번에 정리해주세요.</p>	

[문제 - 1]

19

I. 서문(1)

1. 침해금지청구 의의·취지 (법 제107조)

현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권리를 청구할 수 있다.

2. 침해의 요건

(1) 적극적 요건

유효한 권리의 존재, 보호범위 속한 것, 상품상 사용의 것이 요구된다.

(2) 소극적 요건

정당권원이 없는 자의 사용인 것, 허락제한사항이 없는 것, 권리의 행사가 남용이 아닌 것이 요구된다.

3. 유효한 권리의 존재 ... 적극.

무엇 2023. 8. 13. 상표등록 결정은 발도 바 복모인 을 만족한다.

4. 보호범위 속부 판단.

(1) 상품 유사 여부 ... 적극.

그 상품인 음반과 무의 등록 상품인 음반은 동일하다.

(2) 상표 유사 여부 ... 적극.

i) 상표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전체로 개괄적·이적적으로 관찰하여 수요자 출처 혼동 여부



은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判例), ii) 무라
 乙 상표의 경우 외관에 있어 배경 도형 유무에
 차이가 있으나, 초형과 원본의 유사도 충치 충동
우려가 있어 유사하다.

5. 상표적 사용 여부 ... 적극.

(1) 음반의 제호인 경우 (判例)

1) 원작

음반의 제호인 경우 일반적으로 그 내용의 설명등
 으 충치 표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어 상표
 적 사용이 아님

2) 예외

음반의 성격 및 사용태양, 시리즈물 여부 및
 선전·광고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동자
 에게 충치 표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

(2) 사안

i) 乙이 제작·판매한 음반의 경우 부제 등을 보아
 그 성격이 기획 상품에 해당하며, ii) 1장부터 5장
 까지 동일한 표방을 사용한 시리즈물에 해당하고
 iii) 乙의 선전·광고 및 판촉 활동을 통해 "진한 커피
 껌" 상품 충치 표시 주요한 상표가 될 바, iv) 상
 표적 사용에 해당한다.

6. 정당권원 여부 ... 적극.

(1) 선사용권 의미·취지 (법 제99조 1항).

타인의 출원 전부터 부정경쟁 목적 없이 국내에서 계속 사용한 경우 선출원주의 보장을 위해 선사용권이 인정된다.

(2) 사안.

i) 공의 경우 특허 출원시인 2022.5.15.전인 2016년 10월 경부터 사용하였으며, ii) 별도의 부정 경쟁 목적이 없으므로, iii) 선사용권이 인정된다.

7. 효력제한 여부 ... 소극.

(1) 법 제90조 1항 2호 의미·취지

식별력 없는 표장의 과용 사용 보장을 위해,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표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된다.

(2) 사안

i) 음반의 제호인 경우 일반적으로 출회 표시가능을 수행하리 않아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나, ii) 사안의 경우 "진한커피"는 상품 출회로서 국가원상 표가 된 바 iii) 무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7. 권리남용 여부 ... 적극.

(1) 의미.



상표법의 목적인 상표 사용자의 신용보호나 수급자 보호를 위하는 상표권의 행사는 권리의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법적으로 보호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 (判例)

i) 상표의 출원·등록 과정에 있어서 그 목적과 경위를 보았을 때 ii) 그러한 행사가 상표권의 남용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iii)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 사용과 신용 보호 및 수급자 이익 보호라는 목적과 기능을 인멸하고, 당사자 사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 iv) 그러한 권리행사는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 주권적 시장 외부 (判例)

이러한 권리남용에 자기 이익 없이 라인에게 옹호력을 입혀야 하는 의사 등이 주권적 시장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4) 사안

2-1 진한커피 제 1, 2권 제각시 부록 곡이 선택·배열 등 편성 과정이 상당 정도 관여한 것으로 진한커피 시퀀스의 제각-편마다 그 상당액 상당을 갖고 있었음에도 2-1 허각 없이 상표를 출원 등록 받은 후, 2-1에게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권리
행사로 법률에 해당한다.

9. 결론

甲의 사용은 적극적으로 모건을 만족하나, 정당한 권원과
권리내용이 인정되어 소장은 가각판결이 내려질 것이
다.

Good

II. 설문(2).

1. 소장 내 조치.

(1) 정당한 권리 행변

乙은 자신에게 99조 1항의 전사용권이 있음을 행
변할 수 있다.

(2) 권리내용 행변

乙은 무의 상품권 행사가 권리내용만을 행변할 수
있다.

2. 소장 외 조치 - 무효사실 항구

(1) 악의·취지 (법 제 117조)

증의 상, 하와 있는 상품권류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2) 적부.

乙은 무과 이해관계인이 해당하는 바 항구인 제각
이 인정된다.

(3) 본문 ① - 인식도 관련 사유

i) 2의 전한 커피는 4의 출원 시인 2022. 5. 15일 전 상품 출회로서 주어진 상품이 타인, ii) 상품. 상품이 유사한지인 바 iii) 법 제 34조 1항 9호 13호 후단, 13호의 무효사유가 존재한다.

(4) 본안 ② ~~신의성실의 원칙 관련~~.

1) 의의·취지 (법 제 34조 1항 20호)

특정 관계에 있는 자의 상품과 유사한지 내추인 하며, 그 타인의 사용 또는 준비를 안 경우 신의칙으로 근거로 등록을 부하한다.

2) 사안

4은 2과 동일관계에 있었고, 2의 허락 없이 유사한지 내 상품을 출원하였으며, 2은 국내에서 상품을 사용한 바 본 호에 해당한다.

(5) 소결

법 제 34조 1항 9호, 12호, 13호, 20호 등의 사유로 인용될 것이다.

3. 실의 없는 조치 - 권리변이 확인신판.

권리변이확인신판의 심사 변위로 가각될 것이 유력하므로 이는 실의가 없다.

끝.

[문제-2]

I. 선택(1)

1. 문제의 소재

손실보상청구권의 내용과 그에 필요한 조치 및 행위제한
사유가 문제된다.

2. 손실보상청구권 (법 제 58조)(1) 의의·취지.

마르케트 이강서 권수를 위해, 특허 계속 공 출원상권
과 유사범위 사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이다.

(2) 요건

i) 발생을 위해 사전 경고가 요구되며 (동조 1항)

ii) 행사를 위해 사전 등록이 요구된다 (동조 3항).

(3) 법적 성격.

채권적 권리이며, 해제조건부 독립적 권리다.

(4) 소멸

특권이 없어지거나 상표 등록이 소멸하여 무효가
된 경우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3. 부조치

i) 부의 상표가 특허권 공권이라면 사불 통해, ii)
특권 공권이라면 사전 경고하여야 한다.

4. 결과.

(1) 부 손실 여부 ... 적극.

무슨 특허를 이권 사용한 바 손해의 발생이 인정된다.

(2) 乙 효력제한 여부

乙의 사용은 법 제 90조 항 1호 유형에 해당하나, 손해보상청구권도 법 제 90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손해보상청구권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乙에게 부정경쟁책임을 있는 경우 손해는 보상받지 못한다.

II. 설문(2)

1. 乙의 제 1 사용태양 (법 제 108조 항 1호)

(1) 문제의 소재

직접침해 여부가 문제되며, 적극적 요건인 유효한 권리 존재, 보호범위 속부, 상표권 사용이 문제된다.

(2) 사안

丙의 권리는 등록된 채로 유효하며, 상표의 상표권 유사 범위에 해당하고, 乙의 출회 표시로 인식되어 상표권 사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침해의 적극적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

2. 乙의 제 2 사용태양 (법 제 108조 항 2호)



(1) 문제의 소재.

직접침해가 아닌 바, 간접침해가 문제된다.

(2) 간접침해의 의미·취지

무제재산권의 특성 상 침해 행위가 용이하기 때문
은바, 개연성 높은 전 단계의 행위도 침해로 보는
제도이다.

(3) 사안.

그의 상품 4가 표시된 상품 6를 양도, 인도하는
것은 유통행위로 사용이 해당하며, 사용하거나
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간접침해에 해당
한다.

3 그의 행위에 대한 - 선사용권.

(1) 의미·취지 (법 제 99조)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성이 내 사용이라 하더라도
소정 요건 충족시 선사용권이 인정된다.

(2) 법 제 99조 1항 1호... 적용

1) 요건

i) 출원 전 사용, ii) 출원 시 국내 특강인 특허
로서 인식, iii) 부정경쟁 목적이 없는 것이 요구
된다.

2) 사안.

i) 2022. 4. 15 부러 사용, ii) 2023. 5. 15.

경 2의 특허특성으로 인식 (iii) 변조 부정경쟁특성이
없든 바 본 항의 선사용권이 인정된다.

(3) 법 제97조 2항 여부 ... 적극.

1) 요건

i) 자기의 상표 등을 상대방 관행에 따라 사용, ii)
부정경쟁 특성이 없을 것이 인정된다.

2) 사안.

경은 자신의 상표 주라 불리도록 동일한 상표
를 사용한 바 부정경쟁특성이 없어 본항의 선
사용권이 인정된다.

4. 권리남용 여부.

甲의 관계에서 丙 출원이 법 제35조 51항이 있을
수 있다, 승진통이로도 도입으로 불확실하다.

끝.

가득성 종아요

[문제-3]

I. 서문(1)

1. 의미·차이

(1) 법 제33조 1항 3호.

기술적 표상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상만으로 된 경우, 자라상권 식별력이 있거나 식별력 있더라도 독립적응성이 있어 등록 불가하다.

(2) 법 제90조 1항 2호.

기술적 표상의 자수로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된다.

2.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상"

(1) 의미.

수용자가 상품의 성질 등을 인식·감조하는 것을 넘어서 인식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차이

법 제33조 1항 3호의 경우 구성례양만을 보지만, 법 제90조 1항 2호의 경우 구성례양과 사용례양을 모두 본다.

II. 서문(2)

1. 논점.



상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상인 침해, 손해, 고의 또는 과실
인사관계 중 침해가 문제된다. 그 중 보호범위 속부,
상표적 사용 여부 및 현격미한 여부를 검토한다.

2. 보호범위 속부 판단 ... 소극

(1) 전제

상표는 전제 양식과 양식으로 유사하다.

(2) 상표 유사성 판단 일반 원칙 (3요소)

상 상표의 외관, 발음, 관념을 전체적, 부분적, 이질적
으로 관찰하여 수문자에게 출처 소인, 혼동 연려가 있는
지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사안

무라 공의 상표는 외관에 있어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여 수문자에게 출처 소인 혼동 연려가 없는
비유사상표에 해당한다. 시정 등록관찰을 하여
라도 그 사용상표의 경우 비종라 상대적 식별
력을 고려할 때 'Basic Elite'가 등록이 될 것
이므로 무라 공의 외관, 발음, 관념이 모두 상이
하여 비유사하다.

3. 상표적 사용 여부 ... 소극

(1) 상표적 사용 의미

법 제2조 항 11조의 사용 및 출처 표시기능의 관
행을 요구한다.



(2) 판단 기준 (判例)

상표와 지리상표와의 관계, 사용처량, 상표의
주요·지명성 및 사용자의 의도·경의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안내·설명적 사용의 경우 (判例)

상표의 기능 또는 성질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필요한 최최소기능을 수행한다 볼 수 없어 상
표권 사용이 허용하지 않는다.

(4) 사안

i) INTARSIA는 양판과 관련하여 구체적이지
가 객관적이지는 않으나, ii) 사용처량에 따라 구
판과가 설명적 문제로 인정할 수 있고, iii) 사용처
의 의도와 경의 또한 설명의 의사로 볼 수 바깥쪽
해 보이며, iv) 무상표가 주요·지명화라는 사용
로 주어질 수 있는 바, v) 최최소기능을
반해한다 볼 수 없다. 따라서 상표권 사용이
아니다.

4. 효력 제한 여부 ... 적극.

(1) 성질 표시 인식 판단 기준 (判例)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리상표와의 관계,
거래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안

i) 'INTARSLIA'는 '상간세공, 삼안무늬를 내려내는 편성목이 편성방형' 등으로 이미지는 전문적 기술 용어이나, ii) 국내 백화사점으로 유출되지 않아 구성 레양만으로는 일반 수문자에게 양식과 관련 하여 구체적 의미를 직감시키지 않는다. iii) 그러나 주변 구성 등 사용례양을 볼 때, '신사', 'SN EAKERS', '이레기 근거리용', '플러내린 방리' 등 라 같은 위치에 사용된 것과 상통 하기에 "PASC HUE"라는 별도의 도상이 있는 것등을 고려한 때 수문자에게 성립을 인식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볼 수 있으며, iii) 지공상점과 관련한 거래 계기 시 종종 사용되는 용어인 바 iv) 흔적적인 상위에 해당한다.

5. 결론

아나서 청해의 모안이 기록되지 않아 기각판정이 내려질 것이다. *good*

III. 식은(3) *n*

1. 손해 배상 의무 처리 (법 제 110조)

과거의 손해의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 제 110조 3항 의무 처리

상표권자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3. 손해발생 입증도부 (判例)

법 제 110조 3항은 어디까지나 손해액을 주장하는 규정으로 그 손해의 발생에 대해서는 추정이 되지 아니하며 상표권자는 손해 발생의 연려 내리 개연성을 입증하여 그 입증의 완화를 통해 손해 발생을 입증하여야 한다.

4. 손해 발생 연려 내리 개연성 의미 (判例)

손해 발생의 연려 내리 개연성은 등증의 영입을 영위하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한 경우 인정될 수 있다.

5. 실제 사용 여부 (判例)

손해의 발생은 위해서는 실제 사용이 요구되며, 사회 통념 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6. 과실 추정 여부 (判例)

상표의 등증은 공보를 통해 공시되므로 상표 사용자에게 이미 대한 주의 의무를 추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며, 특허법·실용신안법 등과 다르게 볼 사정이 전혀 없으므로 상표위 경우로 과실이 추정된다.

7. 사망.

(1) 침해 여부 ... 적극.

丙은 무라 유사 방식 내에서 INTARSIA를 사용한 바 침해 인정 여지가 있다.

(2) 과실 여부 ... 적극.

判例에 따라 丙에게는 과실이 추궁된다.

(3) 손해 여부 ... 소극.

判例에 따라 丙은 손해 발생을 입증하여야 하나, 동종 영업 양식을 보았을 때, 丙은 전체 양식에 사용하지 않고 문중하에만 사용하는 바 사회통념상 증명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 발생이 부정된다.

(4) 결론.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기각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끝.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문제 -4]

I. 선행(1)

1. 재심사 청구 (법 제55조의 2).

(1) 의의·처리.

특원인 특허 및 보증을 위해, 거절결정된 특허에 대해 보충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요건.

i)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ii) 결정증분송받은후에 3개월 이내 iii) 상급 또는 상급을 보충하여야 한다.

(3) 절차

보충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결서 제출로 가능하다.

(4) 효과.

거절결정이 취소된다. ~ 취하는 불가하다.

2. 거절결정복심청구(법 제116조).

(1) 의의·처리.

특원인 특허 및 심사의 무효성 심판을 위해, 거절결정에 복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건

i)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ii) 결정증분송받은후에 3개월 이내 iii) 재심청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3) 절차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효과

거절결정 불복심판이 인용된 경우 거절결정이 취소되며, 자판로 가능하다.

3. 사안.

(1) 행정적 절차.

재심사청구와 거절결정 불복심판은 행정적으로 가능하다.

(2) 결론.

주 제로 모두 시기적 요건이 인정되는 바, 보장이 필요한 경우 재심사, 그러하지 아니하면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II. 식민(2).

6

1. 의견제출기회 관련 사례.

(1) 강행규정.

법 제55조 및 제123조의 의견제출기회 부여는 출원인 절차권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이다.

(2) 심판청구의 사유가 아닌 경우.

출원단계에서는 출원행위나 거절결정의 이유가 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심판청구의 사유가

아닌 사유의 경우 반드시 심판 절차에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 받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거절결
정을 유지한 채 기각심결을 내리는 것도 위법
하다.

2. 사안.

(1) 출원 단계 의견 제출 기회 여부... 23주.

심사관인 거각아유에서 상록 B에 대해 통지한바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된 바 있다.

(2) 심판 단계 의견제출 기회 여부... 1주

i) 출원인의 거절결정 사유가 아니었으며, ii) 심판
청구의 이유로 삼지 아니한 바 상록 B를 기점으로
하는 거각사유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기회
가 부여된 바 없다.

(3) 결론.

나로서 강행규정 위반의 이유로 해당 심결은
무효하다.

<이하 여백>

감사합니다!!

[문제 1]

18

I. 심문 (1)

1. 침해금지청구의 의미, 취지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권리 침해자나 침해의 원인이 있는 자에게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2. 초의 상표권 사용 여부 - 제호의 경우

(1) 원칙

제호는, 원칙적으로 책나 음반의 제호의 경우에는 상표권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수요자는 제목을 보고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가늠하는 수단으로 인식한 뿐이고, 저작물의 출처는 출판사나 제작사에 의해 인식되는 것이므로 하였다.

(2) 예외

그러나, 예외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성격, 제호의 사용 태양이나 저작물의 시리즈로 제작 여부, 주지·지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제명이 저작물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상표권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3) 사안의 경우

사안에서, 같은 2016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진 한끼'라는 제명의 음반을 5집까지 시리즈로 제작했고,



'잔한커피'라는 제명 외에도 각 음반마다 부제를 달고 있어 음반의 내용을 암시하는 점, 많은 판매량과 발매 소개하는 기사나 히트상품 선정 등의 사정을 종합한 때, 상표로서 사용했다고 부아야 한다.

3. 이 사용이 표적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창작물으로서 음향상품의 제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1) 원칙 - 표적 제한

원칙적으로, 표지를 창작물의 제명으로 사용한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따라서 출처의 인·혼동 염려가 있다고 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예외 - 표적제한 해당 없음

그런데, 예외적으로 제명으로서의 사용이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인 상표권과의 관계에서 표적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사안의 경우

위의 '잔한커피'의 사용은 1.에서 보듯이 바와 같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므로, 표적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신사용권 취득 판단



(1) 99조 1항의 의미 취지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품 출원 전부터 사용하며, 출원 시에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품 출원으로 인식된 경우에는 그 상품에 해당 상품이 대해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이는 사용주의적 관점으로 등록주의를 보완한 것이다.

(2) 사안의 경우

흔은 甲출원인의 2022.5.15 전인 2016년부터 사용하여 왔고, 출원인의 2022.5.15 이전에 이미 주지한 상품이 되었다. 부정경쟁의 목적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99조 1항의 전제요건이 인정된다.

4. 甲상표권 행사의 권리상용 여부

(1) 무효로 된 것이 명백한 상표권의 권리행사

예를 들어, 비록 명백 등록되어 있는 상품상표를 기초로 한 타 하더라도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성정이 있는지는 무관하게 해당 상표권을 기초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상용이라고 하였다.

(2) 사안의 경우

무은 전한바 1, 2점의 수표권 선택·배분 등에 관여한 자로서 해당 창작성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주지성도 있었으므로 34조 1항의 무효사유가 명백하다. 또한 상품의 출회토의를 위한 출원이 아니라 순수 상업적 상품

신물이 편상해 등록을 받았다는 모아야 함으로, 甲의 권리
대한 상표권 행사는 신의칙 위반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
여 금지된다.

6. 신물의 해면

권리 대한 침해금지청구는 기각판결이 예상된다.

II 신물(2)

1. 甲의 대한 무효심판 청구

(1) 무효심판의 의의, 취지 (117조)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117조 각 호의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등록될 수 있는 상표를 제거하
여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심상표의 난립 방지에 그
목적이 있다.

(2) 제42항 9호 해당여부

권리 상표는 주지한 상표이고, 상표나 상품이 동일한 바
제42항 9호의 무효사유가 있다.

(3) 제42항 11호 위반 해당여부

제명하지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4) 제42항 12호 위반 해당여부

상표가 사실상 동일하고 상품이 동일하며, 주지한 권리의 상표는
특정인의 주지로 인정될 것을 요하는 구성을 만족하므로 주지



행동에 의한 수괴가 기판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243 항
(2) 후단의 무효사유가 있다.

(5) 243 항 1호 해당여부

상표가 동일하고 국내 수요자들에게 주지하며, 그의 신봉에
정상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함으로 243 항 1호의 기판사유
는 있다.

(6) 243 항 2호 해당여부

甲. 그는 제책과정이 관여한 관계로 임무상 관계가 있고,
그의 사물을 앞에서 동일한 상표와 상품을 출원했으므로 본
항의 무효사유가 있다.

2. 기타 조치 -

[문제 2]

I. 심문(1)

1. 이 행사가능한 권리 - 원심보상청구권

(1) 원심보상청구권의 의미, 취지 (58조)

출원인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 정고 후의 심정등을 전
까지 제책자의 사물에 대해 보상금의 지출을 청구한
능 있다.

(2) 원심보상청구권 발생의 요건

① 먼저 출원한 후 출원등과 있을 후, ② 동일. 유사행위



의 사문자에게 경고해야 한다.

(3) 행사의 예

다만, 상표가 실정등록 되어야 실정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2. 甲이 취했어야 할 조치 및 그에 따른 결과

甲은 乙에게 추원등록 후에 경고해야 한다. 乙의 상표
Y를 X와 유사한, 상품 b도 a와 유사하므로 야 경고하면
발생한다. 2024.7.1 에 실정등록 되었으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II. 실문(2)

1. 침해여부 판단

(1) 제 1 사용태양의 경우

1) 직접침해 (10조 1항 1호)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품을 위상품에 사용하거나, 등록
상표와 위상품을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직
접침해에 해당한다.

2) 사안의 경우

같은 甲과 유사한 상표 Y를 유사한 상품 b에 추원하
였다. 또한 상표가 돼진 상품을 판매하는 같은 상표의
유통행위이므로 2조 1항 1호 내륙에 해당해 사용이다. 따라
서 사용태양은 甲상표권에 대한 직접침해이다.



(2) 제 2 사용태양의 경우

1) 간접침해 (108조 1항 2호)

타인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품을 동일·유사한 상품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
하는 행위는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2) 사안

같은 甲의 상표·상표와 유사한 상표 Y와 상품 b에 대해,
b를 양도·인한 목적으로 교행하므로 108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간접침해이다.

2. 2의 주장가능한 항변사유

(1) 99조 1항 주장 거부

1) 99조 1항 의미 취지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 출원시 진위여 사용하며
출원시 특정인의 상품 표시하는 지에 인식된 경우, 신사용
권은 인정한다.

2) 사안

2의 사용시기는 2002.4.15일 부터 이므로 2의 출원인 이
전이고, 특정인의 출원인으로 인식된 시점도 2008.5.15일이
므로 2출원인 이전이다. 따라서 신사용권이 인정된다.

(2) 99조 2항 주장 거부

1) 99조 2항 의미 취지



자신의 생명, 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부정정쟁 목적 없이
회원 전 부처 사용하 있는 경우 신사용권은 갖는다.

2. 사안

주의 상호와 동일한 상품을 ~~불~~ 사용하 있고, 사용 시작
시점이 兩 회원일보다 먼저로, 99조 2항 신사용권을 주장
할 수 있다.

가족님 좋아요!

[문제 3]

I. 질문(1)

1. 각 규정의 취지

33조 1항 3호에서는 상품의 성질 등의 표시의 등점 작용성 공개
를 위해서, 90조 1항 2호의 경우 상품의 성질 등의 표시
를 자유사용의 영역에 두기 위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으로 판사한 것을 말한다.

2.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판사한 상품' 의미 차이

33조 1항 3호에서는

Ⅱ. 식문(2)

1. 동해배상청구의 의미, 취지 (109조)

상표권자는 의사 대신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동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상표의 유사여부

(1) 요부의 개념과 필요성

예를 들어, 소비자들에게 상표 중 일부만이 인식되거나 기억, 연상하게 하는 등 독자적으로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요부라고 하며 유사판단 시 비교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

(2) 사안의 경우

이 상표에서 하단에 'BASIC ELITE'라는 표장이 별도로 존재하고, 'INTARSIA' 부분은 왼쪽 상단에 'BASIC', 'SNEAKERS' 부분 등과 같이 병기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들에게 독립된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볼 수 있다. 따라서 나머지 구성과 비교할 때, 상표는 유사하다.

3. 상표적 사용 여부

(1) 상표로서의 사용 판단기준 취지

예를 들어, 상표로서의 사용 판단할 때는 상표의 주요성,
상표의 인지

사용 태양, 상품의 주지·지명성, 사용자의 의도와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2) 사안의 경우

사용 태양 등을 고려하면, 하단의 'BASIC ELITE'에 비해 상품로서의 사용이 떨어지고 'INTARSIA'의 의미가 거의 상실된다는 의견이나 모든 효과를 나타내는 기법이므로 사용자는 상품으로서의 사용의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상품적 사용이 아니다.

4. 90조항 2호의 호환적인 사유 여부

(1) 90조항 2호 의미, 취지

등록상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 상품의 생산·성질 표시한 것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표시한 경우 호환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2) '기술적 용어'의 판단기준

통계적으로, 기술적 용어의 의미에 있어 그 자체가 일반적으로 널리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점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성질 표시 정도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본 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3) 사안

INTARSIA는 전문 기술 용어로 그 자체로는 수요자들에게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점에 따라, 양말에 대한 성질 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식되므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90조 항 소의 효력 제한사유가 있다.

ㄷ. 식문의 해명

농의 개작판권이 인정된다.

II 식문(가)

가

1. 雨의 침해 성립 여부

雨은 甲과 유사한 'INTARSIA' 상표를 문중화와 유사한 '양' 말이에 사용하고 있고, 혼동가능한 사용으로 보아 양으로 침해권을 주장한다.

2. 乙의 과실 여부

甲은 유효한 雨의 상표권자이므로, 상표권이 등록되면 이를 사용하는 제3자의 사용에 대해서는 직접 과실이 인정된다.

판례

3. 甲의 손해 인정 여부

(1) 등록상표 불사용 시 귀책 **간접 영향력**

상표법은 특허법과 달리, 제3자의 침해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상표는 선택의 영역인바, 등록 이후 사용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110조의 손해배상 적용이 불가능하다.

(2) 사안



주요 유사상품인 '온돌화'에만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등록상품인 '양말'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甲의
 동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바, 甲의 침해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4. 식물의 해충

甲 소용에 대한 가상판정이 예상된다.

[문제 4]

I. 식문(1)

1. 재심사 청구

(1) 의의, 권리

출원인의 보호를 위해, 개진경정 등을 동등인부터 공개일
 내에 보정서와 함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요건, 절차

개진경정등을 동등인로부터 공개일 내에 출원인이, 상품나
 상품을 보장하는 보정서와 함께 청구해야 한다.

(3) 효과

재심사 장치가 적당하여, 보정된 내용으로 심사관이 다시
 심사에 착수한다. 이는 취할 수 있다.

2. 개진경정요청심판



(1) ~~원인~~ 의의, 취지

출원인의 심판청구 보장을 위해, 기판정 받은 ~~출원~~ 출원에
대해 전부, 일부에 관해 불복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2) 권리, 절차

기판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월 내에, 기판정 받은 자
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청구해야 한다.

(3) 효과

인정되면, 특허심판원에서 심사관의 기판정에 대한 직
접과 함께 통각능성을 심리한다.

3. 무이 정하 받을 수 있는지

(1) 재심사 청구 가능

기판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이 갓으로 시정 요건
만족하고 보정서와 함께 청구가 가능하다.

(2) 기판정 불복심판 가능

기판정 등본 송달일 1개월 후에도 시정 요건을 만족한다.
또한 C와 일부가 유사하다고 하므로 일부 상품에 대해
기판정 불복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II. (문2)

1. 기판정 불복심판 의의, 취지

기판정 받은 출원인은 해당 출원의 전부, 일부에 대해



거짓진정 등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부록심판 청구 가능하다.

2. 심판의 위법성 판단

(1) 의견제출기회 부여 (127)

심판 전처치까지 심판의 타당성으로 거짓사유에 대해 당사
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 거짓진정의 이유와 다른 거짓사유의 경우 판례!

심판단계에서는 C를 이유로 거짓진정을 하였고 B에 대
해서는 거짓사유로 삼지 않았다. / 심판단계에서 B에 대한
이유로 거짓사유를 통해 거짓진정을 하려면 먼저 B의
이유를 통지해야 하는데, B에 대한 이유를 미리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B를 이유로 기각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9. 심판의 해고

해당심판은 부정당하다

수고하셨습니다